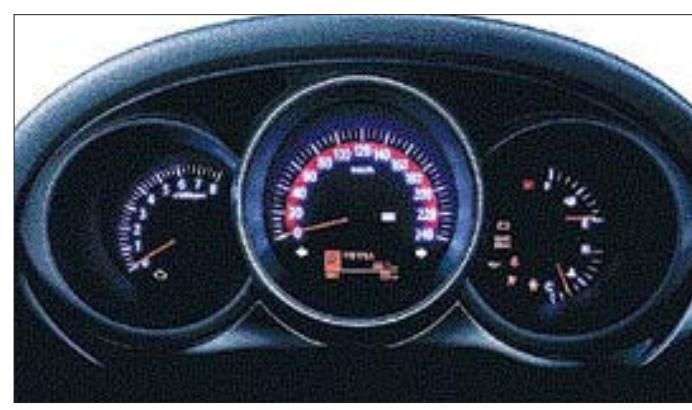


■ 진화하는 첨단 안전장치

최근 자동차업계의 첨단장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안전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안전장치 장착 여부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작은 센서를 통해 차간거리를 유지하거나 보행자와의 접촉을 감지하는 등 최첨단 기술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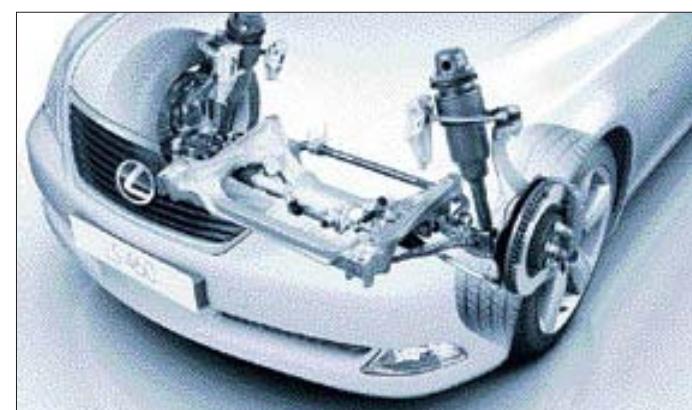
과거에는 에어백이나 ABS만 장착돼도 안전한 차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첨단 안전장치가 있어야 안전한 차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기아차 '로체' 애코클러스터



기아차 '모하비' 후방경보기



렉서스 'LS460' 에어 서스펜션



상용차는 '체어맨 W'에 세계 최초로 3세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을 장착했다.



■ 국내외 브랜드의 첨단 안전 기술

국산차	- 쏘나타'의 주행안전성제어시스템(AGCS)
	- 'VL'의 차량통합제어시스템(VSM)
기아차	- '로체'의 애코클러스터
GMD대우자동차	- '마티즈', '젠틀리', '젠틀리X'의 시계추 공법
상용차	- '체어맨W'의 무릎보호 에어백과 3세대 액티브크루즈컨트롤
르노삼성자동차	- 'QM5'의 경시로 저속주행장치
불보자동차	- 'XV60'의 시티 세이프티
제구이	- 'XF'의 보행자접촉 감지 시스템
BMW	- 5, 6, 7 시리즈의 하이빔 어시스트
포조	- '607'모델의 스피드 리미터
메르세데스벤츠	- 'S클래스'의 프로세이프

제구이는 새로운 모델 'XF'에 '보행자 접촉 감지 시스템(PCSS)'을 탑재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때 보닛의 높이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0.03초 만에 보닛 전체를 약 13cm 들어올리기 때문에 보닛 안의 딱딱한 엔진에 보행자가 부딪치지 않도록 방지한다.

BMW의 '하이빔 어시스트'는 야간 안전운전을 돋는다. BMW 5, 6, 7 시리즈가 갖춘 이 기술은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주행등과 상향등을 바꿔줘 운전자의 시야를 넓게 확보해준다.

렉서스는 'LS', 'GS' 시리즈에 첨단 안전장치인 '차체 역학 통합제어 시스템(VDIM)'을 장착했다.

이 시스템은 전동 파워 스티어링(EPS)', '차량 안정 제어(VSC)', 'ABS(엔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과 엔진 토크 등을 통합 관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S클래스'에 '프로 세이프(PRO-SAFE)'를 장착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시 선루프를 닫고, 탑승자의 좌석 위치를 에어백이 팽창하기 가장 좋은 상대로 맞춰준다.

사고 이후에는 엔진을 자동 차단하고, 도어의 풀립 기능을 작동해 2차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낮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너만 믿고 나는 달린다



◇현대차 등 국산차 첨단 장치 개발 '박차'=현대차의 '제네시스'에 적용된 '차체 자체 제어장치(VDC)'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국산차를 대표하는 첨단 안전장치로 꼽힌다.

'VDC'는 급선회, 급가속, 급제동 등 위험한 주행상태를 인지해 브레이크 압력 및 엔진 출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주행 안정성을 확보해준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 전방의 레이저 센서로 차간거리를 측정해 적정한 차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기술은 시속 40~180km에서만 작동하도록 설정됐으며, 3단계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현대차는 또 '쏘나타'에 '주행안전성제어시스템(AGCS)'을 채택했다. 'AGCS'는 현대차가 독자 개발해 세계 특허를 획득한 기술로, 고속 주행 중 급선회하면 차체 뒤쪽이 바깥으로 밀리는 현상을 방지해준다.

여기에 내년 2월께 발표 예정인 'VI(프로젝트명)'는 현대차의 안전기술 집적체가 될 전망이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차량통합제어시스템(VSM2)'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경고음을 표시하고 경고음을 발생한다. '차선이탈감지시스템(LDWS)'은 차가 차선을 벗어나면 경보 표시와 경보음을 내 줄음운전을 방지한다.

기아차도 '로체' 이노베이션'에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을 도입해 효용을 얻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가장 경제적인 연비로 주행 가능한 운전 영역을 '에코(ECO)' 램프의 점등으로 알려줌으로써 운전자의 정속 주행을 유도한다.

이 시스템으로 연간 2만km를 주행하면 '로체' 2,000cc를 기준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신기술 속속 선봬

'시티 세이프티' '차량 통합제어시스템' 장착

로 매년 98만원 가량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상용차는 '체어맨 W'에 세계 최초로 3세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을 장착했다.

'ACC'는 근거리와 원거리용 와이드 스캐닝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전방뿐 아니라 측면까지 감지한다.

또 '타이어 공기압 감지장치(TPMS)'를 장착해 운전 중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GM대우차는 '마티즈', '젠틀리', '젠틀리X'에 새로운 안전기술인 '시계추 공법'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차체 측면이 어딘가에 충돌될 때 B필러가 시계추처럼 평평하게 밀려들어 오도록 한다. B필러가 탑승자 옆으로 갑자기 꺾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수입차의 눈부신 기술 진화=불보자동차는 내년 1월 국내에 들어오는 'XC60'에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란 차세대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전면 상단에 장착된 레이저 센서를 통해 전방의 교통상황을 알려주며, 주행속도별로 '15~30km/h'와 '15km/h 이하' 두 단계에 걸쳐 작동한다. 교통사고 현장 조사결과 전체 추돌사고의 75%가 시속 30km 이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에 착안해 개발된 장치다.

'좋은 보험기를 쓰십시오!'
난첨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험기 문점 (02) 227-9940
총장점 (02) 227-9970

돌대바다

돌대바다
광어전통탕
돌대
돌대바다

푸른산테크빌

분양/임대 개시 <푸른산테크빌>